

들꽃편지 644

2022.9.23. 추분호

<https://cyw.pe.kr> 햇볕같은이야기

## 지구의 생명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이며 태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열대, 온대, 한대지역의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밤과 낮 등등 태양에서 오는 빛의 양에 따라 지구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그 빛을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환경파괴 문제가 생겼고 급기야 멸망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입니다. 거기에서 1-2도만 더 올라도 사람은 살지 못합

니다. 지구도 사람의 인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최근 5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갔으며, 지금처럼 10년만 더 지나면 이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 상태가 됩니다.

최근에야 인간들은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태양광'입니다. 만약 지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는다면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삼을 것이기에 지금처럼 '자원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순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태양빛에서 나온 열이 풀과 나무를 키워서 초식동물들이 먹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에너지원이 되어 줍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풀과 나무와 식물과 또한 동물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연 순환의 흐름을 역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지구가 1년 동안 생산한 곡식의 3분의 1을 동물사료로 씁니다. 흐름이 막히면 터지죠. 지구가 터지기 전에 얼른 막힌 흐름을 터야 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최용우 올립니다.





강물에 흘러가는  
한 조각 마음

전각/이준우

## 주먹을 펴려면

주먹을 쥔 채로 곧장  
퍼는 수는 없다.  
세상없어도 그런 수는 없다.  
쥔 주먹을 펴려면, 먼저  
주먹에서 힘을 빼야 한다.  
그래야 주먹이 펴진다.

오늘 나는 마루에 앉아  
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먹 쥔 손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잡지 못한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35 거짓말이 자동으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가스렌지에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즉시 가스렌지를 끄고 아침을 먹고 쉬고 있으니 한 시간 후에 아내가 뭔가 한 아름 안고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눈썹에 나가서 봄나물을 뜯었나 봅니다.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스렌지를 켜놓고 돌아다니면 어찌라구?”

“타임스위치 켜 놓아서 괜찮아요.”

잔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경비 일하는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타임스위치 맞추고 가스렌지 켜놓고 돌아다니다가

아파트에서 불을 날 뻔했다는 등 거짓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술술 나왔습니다.

“주님!

왜 기회만 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까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16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96쪽 14,000원 규장 2011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서는 어중간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 1.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전서1장8절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세계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들이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토머스 켈리(1893~1941, 웨이커 교육자)의 지적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 하나는 자연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차원이다. 죄인들은 한 차원에서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 죄인은 물질적 차원에서만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에서 산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그의 영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여기에 있다.

믿음은 그것들을 본다.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믿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되었다.

## 2.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이기에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조차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파괴했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과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신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물론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이 붙드는 진리는 수 세기 동안 많은 공격을 당했지만 흔들림 없이 견뎌냈다.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머리를 숙인다.

### **3.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1.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들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이성을 무시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데, 의와 이성언은 언제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죄인은 '결산'을 생각하지 않는다. 죄인의 삶의 방식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들의 삶에 '결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죄인은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이유는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은 이 세상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다음 세상은 믿지 않는다. 4.죄인은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베드로는 전통을 통해 조상들로부터 어리석은 행실을 물려받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이면 무엇이든지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전통에 의해 어리석은 행실을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5.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악으로 향한다. 우리는 선하게 살라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악해진다. 악한 것이 전통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삶의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도덕적 해방, 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제공하셨다. 어린양의 피가 귀한 이유는 인간을 위해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 **4.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우주에서 지극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한 번만 깜빡이시면, 그분이 채찍을 한 번만 휘두르시면,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왕상2:2)로 가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과 다르다. 호숫가에 서서 두 팔을 치켜드는 미국 인디언들의 믿음과 다르다. 자기 코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기 몸의 기능들을 조절하는 요가 수도자의 믿음과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벧전1:21)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평안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면서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삼킬 듯이 몰려오는 홍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과 피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준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를 가리켜 맹세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 **5.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대개 사랑이 있는 체 한다. 다만 그들도 자기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무리에게는 진짜 사랑을 보인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심어주셨다.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겉으로만 꾸민 사랑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때로는 상대방을 꾸짖기도 한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 매섭게 매를 들 수 있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매도 들었다. 성경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잠3:12)고 가르친다. 참된 사랑은 뜨겁게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한 것들을 전부 미워하신다. 열의 없는 사랑,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 **6.모든 악한 것을 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벧전2:1,2)고 말한다. ‘버린다’는 표현은 옷을 갈아입을 때처럼 ‘벗어버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옷을 세탁할 때처럼 ‘씻어버려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벗어버리든 씻어버리든 악독을 전부 너희에게서 제거하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인들이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4:8)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라. 당신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 당신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 **7.성경의 진리를 자신에게 비추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의 진리는 두 가지 불변의 사실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강림이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성경이 진리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더이상 묻지 말라.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말이 많은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진리가 당신에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라.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성경이 진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당신과 나에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집으로 가서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적용되었습니까?”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당신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성경의 진리가 내게 적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 스스로 살피자.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 **8.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단지 종교인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은 이 세상의 사상과 다르다.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인류요 새로운 족속의 인류이다. 물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족속이다. 당신 자신이 왕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심리학 서적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라. 당신은 왕의 혈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므로 당신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왕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지는 교회라는 새로운 집단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9.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그네이다”(벧전 2:11)라고 말한다. 나그네는 어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라. 그리스도인은 출발지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도 아니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광야일 뿐이다. 잠시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룻밤에 불과하다. 날이 새면 우리는 텐트를 걷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결코 정착하지 않는다. 세상 나라에 귀화하지 않는다.

### **10.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실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문제는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이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올곧은 삶을 살고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눈여겨본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에 남을 것이다.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걱정되지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다. 만일 내가 올바르게 산다면, 그들의 목전에서 믿음대로 성실히 산다면, 나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그들 앞에 제시한 것이다. 만일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분이 오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 **11.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인간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인간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즉시 그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들과 법들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율타리는 온 인류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넓다. 하나님 나라의 머리요 왕은 인자이시다.

### **12.어떤 해(害)도 당하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선한 것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은 그 무엇에게도 해를 당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무엇도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 그 무엇도 그들의 사명 완수를 막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과업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서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 그들은 해를 당할 수 없다.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죄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처리한다면 그 밖의 그 무엇도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마음에서 죄를 몰아내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행하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 그러면 하늘나라의 거리를 걸어가는 천사들처럼 자유롭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선인은 그 무엇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

### 13.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언제나 이단은 의미가 모호한 성경 구절 하나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굶어 죽는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다. 성경은 보편구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즉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지복(至福)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상이다. 그들 중에 일부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여호와와 증인들(러셀주의자들)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허락될 것이라고 믿는다. 즉 사람들이 죽으면 내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멸절되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죄인이 죽으면 땅에서 잠을 잔다. 즉 그의 몸과 영혼이 깊은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가 부활의 때 그는 깨어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그 두 번째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그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러셀주의자들의 교리이다. 이런 것들은 인간들에게는 환영받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빛 앞에서는 즉시 말라 죽는다.

### 14.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한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삶을 버린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그들처럼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무 재미 없는 한심한 삶을 산다고 비난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이다.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앙고백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항의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학교 이사회를 발각 뒤집어놓지 말라.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이상하다고 놀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런 이상함은 좋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과 달리 입술이 깨끗하고 행동이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하기에 이상하게 보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지 않는 교회를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일본 니이가타교회)

## 코 파다가

손가락으로 코 파다가  
커다란 건더기가 나왔다.  
우와! 대박이다.

손가락으로 코 파다가  
코피가 터졌다.  
으흑! 피박이다.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中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 일상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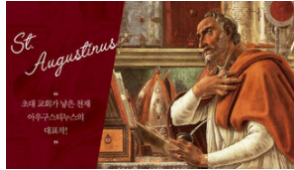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덧글]

김문수 /저런 코를 파다가 코피를 내었네요 저런 너무 아프겠네요  
코딱지인줄 알고 코를 후벼 팠더니 빨간 피가 나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피박이다  
라는 비명 잘 보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필하세요



## 플라톤주의자들의 신을 보는 관점 비판



### 214. 플라톤은 어쩌서 그리스도교에 가까운 이해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플라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이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예언자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거나, 예언서를 읽었으리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능케 하는 것은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 되는데 플라톤이 세계의 창조에 대해 쓴 책<티마이오스>는 ‘하나님은 창조의 작업에서 대지와 불을 결합시켰다’라고 한다. 플라톤은 불에다 하늘의 위치를 부여했고 ‘공기는 영’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보아 어떤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플라톤은 ‘철학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플라톤이 어떤 식으로든 성서를 접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 215. 플라톤학과 사람들은 하나뿐이고 참된 신을 바르게 생각했음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다. 그럼에도 그들을 가장 뛰어난 철학자로 선택한 까닭은 그들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한 유일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들은 다른 철학자들보다 명성이 높고 훌륭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216. 모든 신들은 선하고 덕을 사랑한다고 정의한 플라톤의 생각

플라톤학과 철학자들이 ‘악한 신들에게는 그들이 해꼬자를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희생을 바치며 달래야 하고, 선한 신들에게는 도움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모든 신들은 선하며 악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 217. 세 가지 이성적 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

그들에 따르면 이성적 혼을 지닌 모든 생명은 신, 인간, 그리고 정령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즉, 신의 자리는 하늘에 있고 인간의 자리는 지상에 있으며, 정령의 자리는 공중에 있다고 한다. (계속)

# 하나님의 사랑 2

(Love of God)



## 11.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에 대한 가장 큰 대가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는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인간들은 간음, 도둑질, 사기, 거짓말, 우상숭배, 성도착, 유괴, 살인 같은 죄는 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모르거나 심하게는 그것이 왜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Lucifer)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사14:13-14)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씀으로 ‘죄’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루시퍼(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자녀(엡2:2)가 되어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엡2:3).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7278)

## 12. 자기 사랑의 본능

인간 본성(人間本性, human nature)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치하시려고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에게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본능’, 여자에게는 자녀를 지키려는 ‘모성 본능’같은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여자는 ‘사랑받고자 하는’, 또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본성 안에 ‘행복과 자기 보존을 위한 자기 사랑의 본능’을 심어놓으셨습니다. 정욕이나 부나 명예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자기 사랑의 본능’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자기 사랑의 본능’에 기대어 들어오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애써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져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지만, 그 어디에도 온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7279)

## 13.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1.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2. 짐승이나 바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3.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악한 무리들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 4.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5.젊은 날에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지은 죄들을 눈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6.때에 맞게 필요한 책들과 선생들과 친구들을 보내 주셔서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 무지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7.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8.모든 두려움과 탄식과 눈물을 아시고 들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9.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통탄할 만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못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0.수 많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1.하나님은 때에 맞게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으며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채찍을 완화시켜서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2.헛된 욕망이나, 어리석음이나, 거룩한 것을 멸시하거나, 세속적 욕심에 빠지거나, 육체적 유희에 넘어가 큰 재난을 당하기 전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3.나도 모르는 아찔한 수많은 위험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4.이 세상에서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이 가능한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누리며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욕과 사치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파멸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5.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일과 걱정의 바다에 두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6.무익한 일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아무에게나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근본 없이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고귀하고 정숙하고 깨끗하고 달콤하게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7.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



시고, 참된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8.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9. 세상 헛되고 허탄한 철학과 학문과 사상에 골몰하다가 끝없는 허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완벽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공급받으며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 내가 낙담했을 때 위로자, 승리했을 때 축하자, 곤란에 빠졌을 때 도울자,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자, 범죄하려 할 때 감시자를 붙여주셔서 요나처럼 고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 모든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풍성하게 공급하심과, 끝없는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에 대한 영광스러운 희망과, 성령으로 인쳐주신 언약을 잘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2. 매일 매일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매우 커서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니 그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3. 여기에 또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것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것이 풍성한 분이며,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280-7282)

## 16. 더 좋은 것을 사랑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사랑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만나는 아무개 ㅁㅁ님은 만나면 맨날 ‘땅’ 이야기만 하십니다. 오래전 우연히 산 땅이 지금 10배가 올랐답니다. 얼마나 통쾌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어째 제 배가 슬슬 아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자다가도 좋아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발 저한테 “돈 있으면 땅 사”라는 말은 그만 하세요.

세상이 주는 번영과 즐거움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그런 세상의 번영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번영과 위로와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번영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을 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는 얼마나 가식적이며 환상에 불과한가! 세상이 주는 재미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을 안겨주는가! 세상이 주는 재미는 얼마나 그 대가를 많이 치루어야 얻을 수 있는가! 세상이 주는 재미는 그 수명이 얼마나 찰라처럼 짧은가! 세상이 주는 재미는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세상의 재미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밤낮 세상 재미를 찾아다니느라 방황하고 지치고 슬픔에 빠진 내 영혼아!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자. 더 좋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자,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룩한 분의 품에 안기자. 폭풍을 피하려면 안전한 항구로 어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7283)

## 17.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교묘하게 가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보이게 하거나 무서운 분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선(善)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모조리 지옥불에 던져 넣어 버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타는 지옥으로 쏘아 넣어 버리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절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는 사천왕(四天王)같이 무섭고 고약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愛)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왕(王)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헌금을 바치면 소원을 들어주고 많은 기도를 하면 좋아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도 없이 회개하거나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도 사단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스럽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애써 노력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7284)

## 18. 자연과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과 은혜와 영광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원래 도시가스는 무색, 무취입니다. 만약 가스가 유출되어도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니 큰 사고가 나겠지요? 그래서 가스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냄새를 집어넣어서 ‘가스 냄새’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인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연과 은혜와 영광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을 ‘불경(佛經)’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66권밖에 안 되지만 불경은 전부 모으면 6600경經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불경을 전부 한곳에 모아놓은 것을 ‘대장경’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해인사에는 대장경을 전부 읽겠다고 작정하고 40년 동안 읽고있는 중인 스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장경을 만들 때 동원된 수천명의 글씨 조각기들은 과연 자기들이 새기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새겼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날 맡겨진 일을 열른 끝내고 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1장) 그런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본성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경(經)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팔만대장경을 보고 ‘빨래판’을 모아놓았다고 하는 사람이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인 것입니다.(7285) ©최용우

###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햇별같은이야기〉는 1995.8.12일부터 매일 아침 원고지 5매 1000자 정도의 짧은 칼럼을 27년 동안 매일 이-메일로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침편지입니다. 〈햇별같은이야기〉는 10000번 발행을 목표로 2022년 9월 현재 7316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50쪽 내외의 책 22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로 검색)



완도 바닷가의 노을(사진:최용우)

## 가족휴가 1일째

올해 여름휴가 가족여행은 완도(莞島) 2박3일 일정이다. 어제 오후에 미리 집에 내려온 아이들과 아침 7시 50분에 집에서 출발했다. 네비게이션은 완도 숙소까지 322km 약 4시간 걸린다고 나온다. 중간에 함평천지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숙소로 도착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완도타워'에 갔다. 완도읍내와 남해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다. 이 지역 빵인 '장보고전복빵'도 먹어 보았다. 이후 동들동글한 조약돌이 아홉계단으로 쌓여 있다는 구계등 바닷가에 갔다. 20년, 15년 전에 완도에 와서 봤던 구계등은 정말 계단식이었는데 태풍이 완전 짝 쓸어간 다음에 다시 생겼다고 한다.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숙소로 다시 돌아와서 잠시 쉬다가 유명한 생선구이 '빙그레'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바닷가라서 그런지 정말 생선, 전복이 배 터지게 많이 나왔다.



## 가족휴가 2일째

아침에 일어나니 숙소 밖으로 낮게 깔린 바다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커피 한잔 타 놓고 창밖으로 바다를 보며 멍때리고 앉아 있으니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난다.

이번 여행은 특별한 계획 없이 자유롭게 발길 닿는대로 흘러가기로 했다. 먼저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갔다. 여름의 한 가운데라서 그런지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나는 얼른 바다에 달려가 발을 담그고 해변으로 나오니 식구들이 “이제 해수욕장 봤으니 다른데 가자” 한다. 그래도 기념으로 사진은 찍었다.

완도 읍내로 나와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 서너 곳을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원이다. 결국 ‘삼교리동치미막국수’ 식당에서 막국수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그 옆의 항구가 보이는 ‘베네치아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아내가 어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앉아 멍때리고 싶다고 해서 어제 갔던 ‘구계동 바닷가’로 다시 갔다. 어제는 비도 오고 파도가 높게 쳐서 급히 돌아왔는데 오늘은 바람도 잔잔하고 하늘도 완전 파란 하늘이다. 바다가 보이는 숲속 의자에 앉아서 온 식구들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바닷가에 내려가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파도가 밀려와 발을 적셨다. 밀려온 파도가 다시 나가면서 돌들이 구르는 소리가 청명하게 차르르 차르르 차르르... 아이들도 덩달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파도와 밀려왔다 말려가며 놀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쉬었다. 저녁 식사는 완도 읍내에 ‘싱싱회센터’라는 곳에서 ‘생선회’를 먹었다. 바닷가에서 금방 잡은 생선들이 너무나 싱싱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밤바다의 불빛과 바닷가 특유의 비릿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숙소로 돌아와 두 번째 날 잠을 청했다.



## 가족휴가 3일째

밤새 비가 내렸다. 숙소에서 짐을 챙겨 11시에 출발했다. 다시 322km를 달려 집에 오니 오후 4시이다. 여름휴가 끝!

## 해리왓슨

친구 목사님 교회 입구에 대충 자란 다육이들이 왕성하게 번식해 있었다. 딱히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번식하여 잘 자란다고 한다.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그냥 대충 키워도 잘 자라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다.

해리왓슨이 이렇게 크게 자라는 다육이였구나. 작은 화분에 자구 하나 있는 것만 보다가 나무처럼 자란 것을 보니 멋지다. 원래 이렇게 크게 자랄 줄도 아는 놈인데 왜 우리 집 높은 그렇게 빌빌떨까? 좋은이 말로는 엄마가 물을 너무 자주 줘서 그렇다고 함.

다육이에 관심을 가지니 친구 목사님이 다육이 화분 하나를 차에 덤석 실어준다. 가지고 오면서도 우리 집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좋은이가 “엄마가 물을 주지 못하도록 감시만 잘하면 돼요.”라고 한다.



## 전의

아내의 고향은 ‘전의’이다. 조선시대에는 ‘전의’가 하나의 독립된 ‘현’(지금의 군이나 시)이었을 만큼 큰 ‘읍내’였는데 지금은 세종시에서도 작은 면소재지이다.

그래도 있을 것은 하나씩 다 있다. 농협, 우체국, 신협, 소방서, 초등학교, 중학교, 향교, 오일장... 기차역도 하나 있다. 하루에 네 번인가 기차가 서는 간이역이다. 한때는 수많은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조치원이나 천안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했었다고 한다.

나는 이런 작은 면소재지에 살면서 ‘촌장’을 하며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싶은 꿈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한때 나의 이력서에는 동네 이장을 꼭 하고 싶다는 한 줄이 들어갔었다.

## 서울 올라감

아내가 방학 끝나기 전에 서울 아이들 집에 반찬을 배달하러 가자고 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홍수가 나서 강남, 이수, 사당동 일대가 침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 집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어 서둘러 서울에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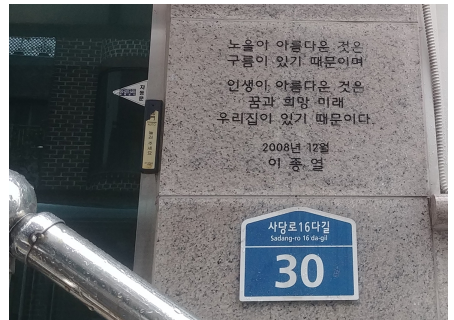


서울 올라가는 내내 비가 내려서 엉금엉금 운전을 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차가 막혀서 시간이 예상보다 항상 지체된다. 2시간 거리를 오늘도 4시간 꼬박 채우고 밤 9시에 도착했다.

골목길 곳곳에 침수의 흔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쌓여있었다. 아이들 집은 까치산 바로 아래 있기에 지대가 높아서 별일은 없었다. 어제는 골목길이 계곡이 되어 물살이 쿵쿵 울려내려갔다고 한다. 어쨌든 하루만에 대부분 복구가 되어 있었다. 서울 왔으니 서울치킨 먹어야 한다며 치킨을 시켜 먹고 잤다.

## 서울 내려옴

밝은이가 동네〈김밥나라〉 김밥이 맛있다고 하여 아침에 일어나 김밥 사러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았다. 여기저기 다니며 골목길 사진을 많이 찍었다. 김밥집은 침수 정전으로 문이 닫혀 있었다.



어머님이 천국에 가신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 15일이 기일이지만 각자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광명에 사는 여동생 집에 3형제가 미리 모여서 추모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광주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아주 최용남 목사를 광명역에서 11시30분에 픽업하여 여동생 농장에 12시에 모였다. 흑돼지삼겹살로 점심을 먹었다.

모임을 마치고 또 비가 오락가락하는 길을 열심히 운전 하여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30분이다. 동네 김치찌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 와중에도 밤중에 나가 6km 걷기 목표를 달성했다 음하하. ©최용우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 ▲제570회 비학산253 (일출봉252m)

종일 날씨가 꾸물꾸물 햇볕이 나지 않아서 덥지는 않았다. 대충 준비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비학봉쯤 갔을 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일출봉까지 더 갈지 아니면 그냥 내려올지 결정해야 한다.

우산이나 우비도 없고 비를 피한다고 정자 안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으니 어차피 비는 맞을 것이다. 오도방정 떨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그냥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비를 맞으며 양반처럼 폼나게 팔자걸음으로 내려왔다. 집에 다 오니 그제서야 비가 그쳤다.

비를 맞으며 숲속 길을 걸었다. 비에 젖은 숲속 풍경을 보면서 '함초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런 풍경을 '함초롬'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 오늘 산행은 함초롬한 산행이었다.(2022.8.8)

### ▲제571회 비학산254 (일출봉252m) 2022.8.17

### ▲제572회 비학산255 (일출봉252m) 2022.8.19

### ▲제573회 비학산256 (일출봉252m)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올해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거의 '비학산'만 오르고 있다. 우리집 뒷산 쑥티고개로 넘어가면 5km, 체육공원이나 중광사쪽으로 오르면 6km,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험악거리며 올라가야 하는 급경사 고개도 있고, 긴 계단도 있고 뻥뻥한 소나무 숲길도 있고, 트랭글 뺏지도 세 개나 있어 지루하지 않은 등산길이다.(2022.8.24)

### ▲제574회 비학산257 (일출봉252m) 2022.8.3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 ①추분(秋分)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추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같은 춘분이나 추분이 되면 도량을 같게 하고, 저울을 잘 맞추며, 곡식의 분량을 재는 말을 비교하고, 저울추를 바로 잡는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각 고을의 수령은 고을에서 사용하는 ‘측량 도구’를 점검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울추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추분은 그런 공평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 ②표지사진 이야기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전시중인 배만실 작가의 <가을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배만실 작가는 광복 이후 생활미술 및 실내디자인 분야를 개척한 선구적 여성 공예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미국 유학 후 귀국해 대학에 장식미술학과를 신설하고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민화, 벽화에 나타나는 구름, 동물 등으로부터 얻은 한국적 이미지를 테피스트리를 비롯한 부드러운 섬유 작품에 접목한 작품을 만듭니다. 덧붙여 전통적 모티브를 현대화해 우아한 고전미와 균형미를 작품 속에 구현하는 작가입니다.

##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편지4권 동자꽃> 510쪽 21,300원 -2022년9월13일 출간

60권 <들꽃편지3권 산부추꽃> 508쪽 21,100원 -2022년8월 30일 출간

59권 <웃긴일기>(일기시리즈13권) 396쪽(올컬러) 23800원 2022.6.29.발행!

58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3> 398쪽 17,000원 2022.5.27

15권-24권<주보자료집1-10권>(재판) 각권 220쪽(컬러) 14000원

57권 <겨울목상> -218쪽 13,900원(올컬러) -12월27일 발행!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5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2.8월 재정결산

2022년 8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경구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호숙 조정옥 주명혁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6분이 96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9.13일 현재 7324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1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새로 나온 책

## 들꽃편지 제4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4권-동지꽃  
최용우 편집 512쪽 21,300원  
교보문고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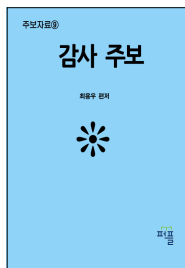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 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 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 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 에 침 문혀 꼭꼭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 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 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31년동안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제4권〉은 184부터 215호까지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⑨ 감사주보+파일

가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며 신  
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1년 동안 감사하라는 이야기  
를 귀에 감사가 박히도록 하  
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  
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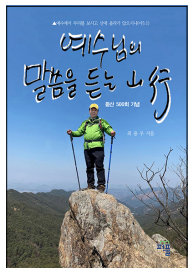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 ⑩ 기도주보+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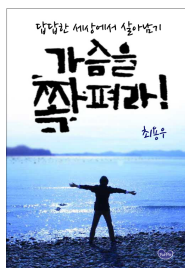
기도주보는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동  
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득 담  
은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  
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등산-생각이 맑아지고 정신  
이 순수해지고 영혼은 갈끝  
에 선 바람처럼 자유롭네.  
2004년부터 17년 동안 500  
회 등산을 하면서 때로는  
바람으로, 향기로 다가와 말  
씀하시는 주님과 산행기록  
31,800원 534쪽(올컬러)



### 가슴을 짹 펴라!

답답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남자든 여자든 풍성한 가  
슴은 자부심이지요. ^^ 가슴을  
짹 펴면 폐기능이 풍성하게  
활성화 되어 자신감과 의욕  
이 부풀어 오릅니다.  
279편의 자신감 회복 글  
11,600원 308쪽 퍼플



### 다시 벌떡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러  
누워서 세상 말바닥만 쳐다  
보면 온통 똥물은 구두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  
도 당장 벌떡 일어나 뛰면  
역전할 수 있어요. 안 늦었  
습니다. 286편의 도전 글  
12,400원 336쪽 퍼플



### 정정당당 잘 살자

힘없고 뺨 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을'인 사람들이 유  
난히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리스도인들은 공의를 행하  
며 쪽팔리지 않게 정정당당  
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286편의 정정당당 글 모음  
12,400원 336쪽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mailto: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4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